

은혜를 받은 청지기

민수기 13:25-14:10, 빌레몬서 1:22-25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직분을 맡기신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함께 주셨다.

1.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면 된다. (몬1:22-24)
 - (1)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맞게 헌신할 일이 있다. (빌레몬과 갇힌 자들)
 - (2)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현상이 있다. (자신, 교회 안, 지역)
2. 청지기의 직분에 헌신할 수 있는 네 단계의 방법이 있다.
 - (1)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
 - (2) 당연한 것을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 누림)
 - (3) 필요한 것이 보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성령충만)
 - (4) 믿음의 선택을 하면 절대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

결론 :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몬1:25)

- (1) 은혜를 받으면 맑은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다.
- (2)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
- (3) 날마다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천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이다.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침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것 같이 들린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직분을 맡겨 주시려고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12에는,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이유 없이, 할 수도 없는데 직분을 우리에게 떠맡기신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6:15-20에 보면, 직분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권세도 아울러 주셨다고 했다. 현장을 치유할 능력도 주셨다고 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달란트라고 한다. 텔란트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아무 것도 못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자기 상황과 수준에 맞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면,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빌레몬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것을 이해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1.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1) 본문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빌레몬처럼 종직자로서 자기 현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갇혀있을 수 없는 일꾼이 있다. 바울과 함께 갇혀있으면서 바울을 돕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과 함께 있으면, 바울의 심부름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소통의 주역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일꾼들은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의 헌신을 했다.

① 먼저 빌레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22절을 보니까, “빌레몬아, 내가 갈텐데, 숙소를 마련해 다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되었는데 2년 후에 풀려나게 된다. 이후에 바울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시 제자를 세웠고,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여기에 자기 집을 제자들을 위한 처소로, 숙소로, 미션 홈으로 제공하고, 바울의 걸음에서, 전도여행에 대한 경제 부분을 책임지고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이 빌레몬의 역할이었다.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다.

② 또, 바울과 함께 갇혀있었던 인물도 있었다. 오네시모는 같이 갇혀 있었다. 자기 수준에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기 심복이라고 했다. 그 추운 감옥에서, 그 옆에서 노(老)사도를 지극정성으로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같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묵회적인 관점에서 도왔던 사람이었고, 누기는 바울의 주치의였다. 우리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김중복 장로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독감예방주사를 놓아 주신다. 나에게 누가 같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내 얼굴을 찌푸리는 환자를 돌봐 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가. 그래도 이번에 올해 우리교회에서 헌신을 8등으로 하셨더라. (웃음) 장로님이 내년에는 1등 하시기 바란다.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③ (에바브라같이) 전도자와 교회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알맞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이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있다.

(2)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살려야 할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 먼 곳에 나가야만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먼 곳으로도 자주 당연히 가야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세계복음화를 했다. 거기에서 쓴 편지가 제자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거기에서 제자를 양육해서 전 세계로 보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책은 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세계복음화를 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여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바로 삶의 자리, 그 곳이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들판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맡겨 주셨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유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① 그러려면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한다. 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되는 일이 없다. 복음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려면, 내가 먼저 복음 체질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15은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면 된다.” 복음을 계속 자신에게 각인시켜라.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예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점점 체험해 가면,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살려야 할 제1현장은 바로 나다. 내가 살고 나면 힘이 약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② 내가 살아야만 교회 안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캠프를 계속 하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산업인들이 월요일, 수요일 낮에 하는 캠프에 참여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캠프가 있다. 교회 안의 탬버트에게 힘을 주는 일, 세신자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 환우들을 정성으로 돌보아 주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요셉처럼,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공함으로써, 제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요셉이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다. 종노릇을 제대로 했다. 기권이 재미있게 움직여지도록 돕는 것,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다.

③ 그러면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현장을 두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안 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된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슈퍼는 가지 않나? 편의점도 들락날락하지 않나? 이런 곳이 다 전도 현장이다. 예전에 보니까 배명자 목사님은 반드시 가방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셨다. 어디를 갔다가도 나올 때는 꼭 전도지를 줬다. “의문이 있으면 여기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이런 곳에 마음을 담고 자료를 전달하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이 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다. 마음만 먹으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하면서 맡기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냥 맡기신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에게 만약 직분을 준다면, 나는 모자란데,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못 할 것 같다 싶어도, 나는 그렇게 말하였다. “예, 아직 저는 많이 모자라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기셨으니, 저도 기도하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조금씩 할 일들이 생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다.

2. 두 번째는,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청지기인 우리에게 네 가지 단계를 방법으로 허락하셨다.

(1) 첫 번째 단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단계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내가 임직식에 많이 가는데, 장로님께, 집사 권사님께 권면을 해 달라고 부탁을 받는다. 축사는 없어도 되지만 권면의 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은 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권면은 율법적이고 축사는 복음적이다 하면서 축사 전문가로 자처하던데, (웃음) 그러나 권면은 반드시 필요하다. 직분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 때마다 이야기한다. “여러분 서약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서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서약문을 버리지 말고 오셔서 성경책 안의 첫 페이지에 붙여 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만 엉뚱하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웠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건강도 돈도 없사오니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고와 우리의 창고를 잇대어 주신다고 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해답이고 결론이다.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청지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될 못 하겠나.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과,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침뱄음을 당하시고 가시편을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못 할 일이 없게 된다. 감사함으로 짝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창세기 6장의 가정 문제, 창세기 11장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도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서 인생을 건져낼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만이 근본적인 멸망에서, 운명 시주팔자에서,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이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 돈으로도 못 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아직도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 버리고 자유인이 되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목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시므로, 원수가 발발 떨게 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아, 완전히 쫓아내고 물러가라.” 한 번만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김연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키도 작은 녀석이, 자기 형을 믿고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때 울보였다. 내가 징징대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울면서 집에 갔는데도 우리 형은 싸움을 그 형보다 더 잘 하는데 말려주지도 않고 내 편도 안 들어준다. 좀 섭섭했다. 하루는 또 뒤에서 내 발을 걷는 것이다. 더 이상 못 참고 돌아서서 바로 주먹을 날렸는데, 한 방에 악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더니, 다시는 나한테 뭘 못 걸더라. 그때부터 자신이 생겼다. (웃음) ‘나도 해낼 수 있구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다. 원수 사탄을 살상 피해다니면, 계속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 천군 천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 자녀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하시라 바라다. 요한복음 19:30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악령은 이제 우리와 상관 없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란다. 우리의 경제도 자녀도 만남도 건강도 다 그 안에서 끝나 버린 것으로 믿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가 싸울테니 너는 이 침대에서 쉬면서, 내가 한 상 차려놓았으니 실컷 먹어라’ 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또 넘치나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런 주간에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2) 두 번째 단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보통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쓸데없는 것을 한다. 청와대 경무관이 청와대만 잘 지키면 되지,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니가 그런 것이지. 당연한 것을 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당연한 것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을 안 해서 사회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어차피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한다. 어차피 직장에 가면 일을 해야 한다. 어차피 집안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함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게 답이다. 기왕 할 것, 무엇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서 억지로 하나. 그게 노예근성이다. ‘내가 노예가 되다니요.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대답이 안 들린다. 그러면 노예를 계속 하라는 것이다. 너무 잘 했는데 감옥으로 왔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질문했을 것이다. ‘종신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라면 여기에서 응답을 받았습시다. 여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도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닌가? 이것을 당연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또 할 수 있다. 계속 해야 한다. 흑암을 꺾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도 알게 되었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 는 비밀도 알게 되었다. 사용하면 된다. 사장시키지 마라. 칼을 들었으면 무를 베는 데라도 사용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야야, 나는 다 주었는데 너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해라.”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흥해를 건널 때는 갈라 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며 믿음 훈련이 된 후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홍수가 저서 범람하여 물이 도도히 흐를 때에, 그리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발을 내딛을 때 물이 끊어졌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의 말씀이다.

(3) 세 번째 단계는, 현장의 필요한 것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한 가지만 바꾸면 엄청난게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예배시간 5분 전에만 다 도착 했으면 좋겠다.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반밖에 안 차 있으니 다 걱정한다. 늦게 와서 그렇다. 제발 5분 만 먼저 와라. 그런 걱정 좀 안 하도록. 오늘 1부예배에 일찍 가 봤는데, 예배 시작 20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오셨다. 오셔서 의

자 한복판에 앉으셨다. 그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끝에 앉지 않고 긴의자의 한가운데 앉았다. 다른 사람이 올 때 앉기 쉽도록.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필요한 게 보인다. 그것을 채워 넣으면 된다. 모자라면 내가 조금 채우면 된다. 걱정할 게 없다. 안 되면 내가 하면 된다. 걱정할 것 없다. 그게 믿음이다. 굉장한 게 아니다. 우리가 굉장한 것을 하라고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을 하고,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성령충만이라고 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다. 요셉이 이런 성령충만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험통한 자가 되었더라.” 환경도 여건도 좋지 않았다. 좋은 자리도 아니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힘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제대로 했을 뿐이다. 나이 어린 종이 결국은 주역이 되었다. 감옥에서도 주역이 되었다. 바로왕이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와 같이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네가 우리나라를 말라라.”

(4)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구약본문에는 그 선택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불신앙의 선택 대신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결과를 주신다. 막을 수 없는 결과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인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바울과 바울 팀은 모두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특히 직분을 맡은 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한 해 동안 헌신해야 할 모든 청지기 여러분이 누리야 할 결론이 25절에 나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평이 있을 수 없다. 모자라면 내가 채우면 된다. 내가 가난해서 못 할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1)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일을 지속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은혜다. 그래서 당연히 할 것과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타고난 자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 즐거움으로 맡은 일을 한 해 동안 하고 나면, 내년 이 시간에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네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을 했더니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드리게 되었네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히브리서 4:16에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고 했으므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결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의 자리에는 서지 않겠다!’ 이것만 결단해도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는다. 일을 실컷 해 놓고 열 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멸망하면 되겠는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는가?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직분을 받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취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매순간 하라.

(3)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누릴 실천이 예배 회복이다. 내년 한 해는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마음가지미 달라진다. 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공예배와 개인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으라. 그 전에 받았다는 말은 지금 안 받고 있다는 말 아닌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일은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 바울은 풋대를 향해 지금 달려간다고 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맡겨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적용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종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은혜 받은 청지기가 되어 한 해를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며 이것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